

채만식 풍자소설의 반복과 차이*

이상재**

|| 차례 ||

- I. 풍자와 허무주의
- II. 채만식 풍자소설의 반복
- III. 채만식 풍자소설의 차이
- IV. 반복 그리고 차이

【국문초록】

1930년대 대표적 작가인 채만식은 당대 현실의 문제를 풍자기법을 통해 소설화하는데 탁월했다. 이에 대해 김윤식은 채만식의 풍자소설에 대해 풍자정신의 소산이라고 평가했지만 그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1930년대 말부터 채만식은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김윤식의 평가는 이후 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채만식에 대한 그의 평가는 결과론적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써 해방 이후의 그의 풍자소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채만식의 1930년대 풍자소설과 해방 이후 풍자소설을 반복과 차이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채만식 풍자소설에서의 반복은 크게 세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 자아 성찰과 사회에 대한 비판이다. 둘째, 전통을 계승한 회화화와 아이러니를 바탕으로 한 풍자이다. 셋째, 역사인식의 부재에 따른 기회주의를 비판했다. 이와 달리 채만식 풍자소설의 차이는 1930년대 소설과 해방 후의 소설에 뚜렷하게 드러난다. 첫째, 사건과 사건의 연속과 반전에 있다. 둘째, 경제와 정치에의 욕망이다. 셋째, 전망의 부재와 내재라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5A07037958)

**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풍자소설의 전후를 살펴볼 때, 1930년대 소설에는 허무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으나 해방 후 소설에는 신세대를 앞세워 낙관적 전망을 보여준다.

주제어 : 채만식, 풍자, 허무주의, 반복, 차이, 아이러니, 기회주의, 전망.

I. 풍자와 허무주의

1930년대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채만식은 당대의 사회적 문제를 풍자소설로 표현했다. “모든 객관적 조건이 극도로 불리한 조선에 있어서는 정공법 이외의 측공법도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본 유진오의 견해¹⁾와 같이 채만식의 풍자소설은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된 일제의 사상 탄압을 타개하려는 문단적 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유진오를 비롯한 당대의 비평가들이 제안한 풍자를 작가 채만식이 ‘측공법’으로써의 현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이었다는 것에 일정 부분 동의²⁾할 수 있지만 해방 이후까지도 그의 소설이 우회적 방법으로 일관했다는 점에는 동의하기 힘들다.³⁾ 왜냐하면 주지하다시피 그 동안의 역사적·사회적 상황이 급변하

1) 유진오, 「문단에 대한 희망」 2·3, 『조선일보』, 1933.1.3.

2) 유진오의 견해는 카프계열의 평론가들에게 비판을 받았으나 객관적 정세의 불리 속에서도 “풍자가는 끊임없이 어떤 한 사회 상태, 어떤 한 사회의 발전경향과 맞서 싸운다”(G 루카치, 김혜원 편역, 『풍자의 문제』, 『루카치 문학이론』, 세계, 1990, p.62.)라는 측면에서 볼 때, 풍자 문학론은 “민족주의 문학운동이나 카프문학 운동을 막론하고 가혹해진 사회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과 변혁의지를 표출한 문학혼의 하나”였다.(정은경, 『최재서의 풍자문학론과 그 이후』, 『우리문학연구』37, 우리문학회, 2012, p.530.) 또한 이 풍자기법은 조선 후기 박지원의 풍자소설과 그 전통을 같이한다고 볼 때, 모순에 대한 풍자를 통한 변화의 축구로 볼 수 있다.

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1930년대 구인회의 대표적인 작가이자 순수소설을 지향했던 이태준이 해방 이후 쓴 『해방 전후』를 통해 사상적 경향을 드러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1930년대 후반 김남천이 『패배자의 무덤』과 『모색』을 논하면서 채만식이 사용한 풍자기법은 세태소설로부터 자신을 구하려했던 작업이었지만 ‘니힐리즘’에 부딪혔다고 평가⁴⁾한 이래 김윤식은 그의 풍자에 허무주의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⁵⁾ 이로 인해 그의 소설이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김남천과 김윤식의 평가는 이후 많은 학자에게 영향을 미쳤다.⁶⁾ 하지만 이는 1930년대 채만식의 풍자소설과 그 이후에 쓴

3) 이화진은 일제 치하의 풍자소설만을 다루면서 채만식의 풍자의 선택은 “악화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적 모색의 과정에서 지식인으로서의 존재 모순을 발견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지식인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p.253)으로 파악하고 두 가지 방향 - 자기 방어로서의 소극적 풍자, 비속한 외부세계에 대한 주관적, 공격적 풍자 - 으로 나아갔다고 본다. 하지만 이 논의에서 문제되는 것은 1945년 이후 풍자소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측면이 있다. 그것은 기존의 연구자들이 보여준 바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해방 후의 풍자소설이 일제강점기의 풍자소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연구자의 인식이 내재된 것이다. (이화진, 『채만식 풍자소설의 성격 재론』, 『국제어문』30, 국제어문학회, 2004.)

4) 김남천, 『산문문학의 일년간』, 정호웅·손정수, 『김남천전집』 I, 박이정, 2000, p.539.

5) 김윤식, 『채만식』, 문학과 지성사, 1984, pp.26-45.

6) 정호웅은 “채만식은 허무주의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풍자를 택했지만 부정적인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의 제시에 이르지 못했다. 자본주의적 현실을 탐구, 그 부정적인 이면을 들춰냄으로써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지만 자본주의 체제의 한복판까지 접근하지는 못하고 말았다”고 평가한다. (정호웅, 『현실 탐구의 깊이와 허무주의』, 『우리 소설이 걸어온 길』, 숲, 1994, p.117.) 신두원은 “풍자의 칼날이 무디어졌을 때 채만식이 도달한 것은 니힐리즘”이라고 하면서 니힐리즘의 싹도 『레디 메이드 인생』에서 엿볼 수 있으며, “이 작품에서 풍자의 방향과 니힐리즘의 싹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다. (신두원, 『풍자와 니힐리즘적 부정 정신의 안과 밖』, 이주형 편, 『채만식 연구』, 태학사, 2010, p.159.) 이 밖에 채만식 소설 『금의 정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도연은 등장인물 은봉아에게서 채만식 소설이 지닌 허무주의의 핵심을 찾아낸다. 즉 ‘타락한 현실’과 ‘순결한 자아’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패배자의 무덤」과 「냉동어」와 관련을 맺을 때만 가능한 평가로 해방 후 그의 풍자소설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실제 해방 이후 풍자소설과 그 후에 쓰인 「낙조」와 「소년은 자란다」와의 관계를 살펴 볼 때, 허무주의보다는 낙관적 미래가 작품 안에 오롯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채만식의 모든 풍자소설을 한 바구니에 넣고 평가하는 것은 그의 문학적 성과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채만식의 1930년대 풍자소설과 1945년 이후 풍자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그 관계 양상을 반복과 차이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반복’적 행위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학문은 정신분석학이다. 프로이트는 1차 세계대전을 겪은 사람들에게서 ‘외상성 신경증’(die traumatisch Neurrose)을 발견하였는데, 외부적 영향이 무의식으로 변하여 강박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다.⁷⁾ 그는 반복에서 억압된 것들이 회귀함으로써 불쾌할지도 모르지만 그 속에는 일정량의 쾌락⁸⁾도 들어 있음을 간파했다. 한발 더 나아가 들뢰즈는 반복에 내재한 차이에 주목했다. 그에 의하면 반복은 차이나 변화에 의존해야 하며 차이가 없는 반복은 헛벗은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차이를 통해 우리는 한 질서에서 다른 질서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⁹⁾ 이로 비춰 볼 때, 채만식이 풍자소설을 반복적으로 창작했던 것은 단순히 불쾌나 쾌락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반복에 내재한 차이를 통해 그의 문학적성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모든 예술이 그러하듯이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듯

귀결되면서 “타락한 현실의 균열과 모순 속에서 제 안의 비루함을 발견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를 자기갱신의 계기”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이도연, 『채만식 문학의 인식론적 지형도와 구성원리』, 소명출판, 2011, p.104.)

7) G.Freud, 박찬부 옮김, 『쾌락원칙을 넘어서』, 열린책들, 1997, pp.16-17.

8) 위의 책, p.23.

9) 질 들뢰즈, 김삼환 역,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p.182.

하지만 그 작품 속에는 작가의 예술 정신뿐만 아니라 기타의 세부적인 요소들이 차이성을 띠며, 각 예술의 아우라를 생성한다.

본 논문은 두 시기에 걸친 채만식의 풍자소설이 ‘측공법’의 한 현상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며, 그가 풍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허무주의로 경도될 수밖에 없다는 기존 논의들이 지닌 문제에서 출발하여 채만식 풍자소설을 새롭게 조망하고자 하는데 있다. 즉 1930년대 후반과 해방 후의 채만식 풍자소설은 기법적 측면에서나 담론적 측면에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풍자소설이 ‘니힐리즘’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낙관적 전망’까지도 담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 같이 채만식 풍자소설을 연구할 때, 그의 풍자소설이 지닌 보편성 뿐만 아니라 개별성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그의 문학적 특성과 세계관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II. 채만식 풍자소설의 반복

1. 자아 성찰과 현실에 대한 비판

1930년대 후반 채만식의 풍자소설은 여타의 작가¹⁰⁾와는 다른 경향을 띤다.¹¹⁾ 김남천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는 정신적으로 좀 더 아름다워지고

10) 이상은 『날개』에서 근대사회의 무능력한 지식인을 풍자하여 스스로를 비판했다면, 김유정은 『금따는 콩밭』에서 1930년대 황금열풍에 대한 농촌 공간의 서민들의 행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 자아를 성찰한 이후에 사회를 풍자하여 문제시하지는 않았다.

11) 앞으로 채만식 글의 인용은 1989년에 발간된 창작과 비평사의 『채만식전집』에 따른다.

자 하는 비교적 순결한 방향과 하나는 아주 그것이 고리고 악취미적인 것으로만 까라져버린 방향”¹²⁾이다. 이를 풍자적 소설과 풍자소설로 나눠 볼 수 있다.¹³⁾ 풍자적 소설에서는 『레디 메이드 인생』(『신동아』, 1934년 5·6·7월호)을 시작으로 『명일』(『조광』, 1936년 10·11·12월호)에 이르기까지 지식인이 자기모순을 인식하는 것으로 묘사된다.¹⁴⁾ 『레디 메이드 인생』에서 보듯이 “되다가 찌부러진 찌스레기”¹⁵⁾라거나 『명일』에서 “이놈의 자식 승어부(勝於父)는 했구나”¹⁶⁾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인의 자기비판과 성찰이 드러난다. 당대의 정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당시 지식인의 주된 관심사는 사상의 문제에서 자신과 관련된 가족의 경제적 문제로 전환되고 있던 때였다. 『명일』에서 등장인물 ‘범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치적 변화’는 필요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절박한 것은 경제적 문제였다.¹⁷⁾ 그러므로 풍자적 소설에서는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몸

12) 김남천, 앞의 책, p.538.

13) 채만식의 풍자소설의 범위는 연구자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난다. 본고에서는 풍자적 소설은 부분적으로 나타난 풍자로써 대개 지식인의 성찰이 주를 이루며, 풍자소설은 소설 전체에 풍자가 사용되고 사회 전반에 대한 전면적 비판이 나타나는 소설로 정의한다.

14) 『레디 메이드 인생』과 『명일』은 지식인의 모순을 드러내고 반성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풍자를 사용했을 뿐 소설에 전면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화진도 견해를 밝혔듯이 “작가 자신을 포함한 지식인의 철저한 자기 반성적 인식이 동반되지 않”았고 “1930년대 들어 가중된 외부적 탄압은 작가 스스로 자신의 존재의미를 되짚어보도록 강제하는 측면”(p.254)강했으므로 “본격적인 자기 풍자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이화진, 앞의 책, p.253)

15) 채만식, 『레디 메이드 인생』, 『채만식전집』7, p.49.

16) 채만식, 『명일』, 앞의 책, p.188.

17) “범수는 자신더러 그의 가슴에 잠긴 막연한 기대가 무엇이나고 물으면 그는 서슴지 않고 정치적 변화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닌게아니라 그것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절박한 것은 돈이 생겨지이는 기대 그것이다. 그 자신은 그것을 부정할지언정 그것은 꿈쩍할 수 없는 사실이다.”(채만식 위의 책, p.156)

소 ‘노동’할 수 있는 기술의 필요에 대해 역설한다. 그 결과로 『레디 메이드 인생』에서 어린 자식을 인쇄소에, 『명일』에서는 큰 아들을 정비공장에 취직시키는 것이다.

채만식 소설에서 지식인의 의식 변화는 그들에 대한 일제의 사상 탄압으로부터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1920년대 후반 『생명의 유희』(『문학사상』, 1975년 1월 호, 유고)와 『양탈』(『신소설』, 1930), 그리고 『창백한 얼굴들』(『해성』 1931년 11월호) 등에서 경제적 문제를 지속적인 관심 대상으로 삼은 것을 볼 때, 이는 실상 채만식 자신의 실생활에서 터득한 것이며, 경제적 무능력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생활은 고사하고 고귀한 이상까지도 망가뜨린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지탱해주는 기본적인 토대임을 깨달은 것이다.¹⁸⁾

채만식은 풍자적 소설에서 자아성찰을 한 이후 풍자소설을 통해 대타자인 일제의 경제정책에 예속되어가는 식민지인들을 풍자했다. 풍자소설인 『태평천하』(『조광』 1938년 1-9월호)와 『치숙』(『동아일보』, 1938년 3월 7-14일), 그리고 『소망』(『조광』, 1938년 10월)이 그것이다. 『태평천하』에서 풍자의 대상은 중산계층으로 대표되는 윤 직원과 그의 가족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들의 자본과 그에 상응하는 쾌락이기 때문에

18) 채만식이 실생활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찾은 ‘노동’에 대한 인식은 마르크스의 생각과 상통한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노동’에 대해 말한다. “인간은 그들 생활의 사회적 생산에서 그들의 물질 생산체력의 일정한 발전수준에 조응하는 일정한, 필연적,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제관계, 생산관계를 맺는다. 이 생산 제관계 전체가 사회의 경제적 구조, 현실적 토대를 이루며, 이 위에 법적이고 정치적인 상부구조가 세워지고 일정한 사회적 의식 형태들이 그 토대에 조응한다. 물질 생활의 생산양식이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생활과정 일체를 조건지운다.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하는 것이다.”(칼 마르크스, 김호균 옮김, 『정치 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중원문화, 1988, p.7.)

그들은 일제를 그것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로 인식한다. 지식인 풍자와 사회 풍자가 동시에 시도된 『치숙』에서도 비판의 화살은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저씨보다는 일본인 상점에서 일하며, 그 주인의 말을 맹신하는 조카로 향한다. 또한 『소망』에서는 서울에 사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중산층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해방 이후에도 채만식의 풍자적 소설과 풍자소설에서는 지식인의 성찰과 사회 비판이 재현된다. 1930년대에는 풍자적 소설과 풍자소설이 순차적으로 발표되었으나 해방 이후는 풍자소설보다 풍자적 소설이 대체적으로 늦게 발표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맹순사』(『백민』(白民) 3호, 1946년)를 발표한 이후 『역로』(『신문학』, 1946년 6월호), 『미스터 방』(『대조』 2권 7호, 1946), 『논 이야기』(『해방문학선집』, 1946), 『낙조』(『잘난 사람들』, 1948), 『민족의 죄인』(『백민』 16호, 1948년 10-11월) 등이 그것이다.¹⁹⁾ 이러한 순서 변화는 채만식 스스로의 모럴에 대한 고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가능하다. 1940년 초반부터 쓰기 시작한 친일소설로 인해 그 죄의식이 해방 후 소설 창작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하지만 채만식이 반복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풍자소설을 썼다는 것은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고뇌와 성찰의 결과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풍자기법을 사용하는 작가일수록 스스로의 모럴에 대한 고뇌가 다른 작가보다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작가 스스로 도덕적이지 못할 경우, 풍자소설은 그 힘을 잃고 독

19) 해방 후 채만식의 풍자소설들은 탈고 년도와 발표 년도에 차이를 보인다. 본고의 본문에서는 발표 년도를 표시하였으나 탈고 년도는 『맹순사』(1945.12.19.), 『미스터방』(1946.2.16.), 『논이야기』(1946.4.18.), 『역로』(1946.4.24.), 『민족의 죄인』(1946.5.19.), 『도야지』(1948.6.22.), 『낙조』(落照)(1948.8.15.)로 소설의 끝에 표시해 놓았다. 특이한 것은 『민족의 죄인』의 탈고 년도와 발표 년도가 약간의 차이가 난다. 특히 『민족의 죄인』은 2년 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관심을 끈다.

자도 그 작가의 흥결로 인해 작품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풍자적 소설인 『역로』(『신문학』, 1946년 6월호)와 『낙조』(『잘난 사람들』, 1948년), 그리고 『민족의 죄인』(『백민』 16호, 1948년 10-11월) 등은 1930년대 후반 풍자적 소설과 달리 과거 자신의 친일행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매개로 하고 있다. 『역로』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나’의 친일에 대한 반성 그리고 당대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다룬다. 마찬가지로 『민족의 죄인』에서도 일제에 동조하여 연설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반성하고 조카에게 불의에 대해 적극 나설 것을 강권한다. 『낙조』에서는 보통학교 교사인 ‘나’의 자아성찰이 주변인과의 비교와 비판을 통해 점점 심화된다.

“난 양갈보야. 난 xx놈의 자식을 애뻘어. 그러니까 난 더런 년이야. ……그렇지만서두 난 누구들처럼 정신적 매음은 한 일 없어. 민족을 팔아먹구, 민족의 자손까지 팔아먹는 민족적 정신 매음은 아니 했어. 더럽기루 들면 누가 정말 더럽꾸?”²⁰⁾

위의 인용문은 ‘나’를 연모했던 춘자가 미군의 아이를 임신한 상황에서 ‘나’가 “차라리 죽어버리구 말지!”라는 말에 대한 춘자의 반응이다. 그녀도 자기가 한 일이 부끄럽지만 “조선말 버리구 왜말 쓰라구” 했던 지식인들을 비판함으로써 ‘나’가 지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배가시킨다.

해방 후 풍자소설은 『맹순사』(『백민(白民)』 3호, 1946), 『미스터 방』(『대조』 2권 7호, 1946), 『논 이야기』(『해방문학선집』, 1946) 등이 대표적이다. 이 세 작품은 해방 후 문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일제 치하라는 시대적 배경을 끌어들이므로써 그 풍자를 극대화하는 형태를 취한다. 하지만 1930년대 풍자소설에서의 경제적 문제와 달리 『맹순사』에서는 도시를 배경으

20) 채만식, 『낙조』, 『채만식전집』8, p.411.

로 하여 일제 치하의 순사가 해방 후에도 다시 치안을 담당하는 혼란한 당대의 상황을 드러낸다. 『미스터 방』에서는 해방 후 미군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은 방삼복을 등장시켜 지배체제에 동조하거나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야 하는 부조리한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와 관점을 달리한 『논 이야기』는 구한말부터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 후까지 한 생원의 행위를 풍자하고 농촌 문제를 비판적으로 제기한다.

이처럼 풍자적 소설과 풍자소설의 반복적 창작 행위는 프로이트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억압된 무의식의 고통스런 소환이다. 다시 말해 1940년 초반의 친일 경력이 채만식에게 없었다면 해방 후의 풍자소설은 창작될 가능성이 희박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작가로서 자의식이 강했던 그가 자신으로 대변되는 지식인의 풍자적 소설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 희화화와 아이러니에 바탕한 풍자

풍자는 모순의 발견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부정적 대상에 대한 비판 정신의 소산이다. 문단에 제시된 당대 현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풍자기법은 대상을 정면으로 공격하기 보다는 에둘러 들춰냄으로써 그 비판이 강화된다. 주지하다시피 채만식은 풍자를 가장 잘 사용한 현대 소설가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풍자소설을 썼는데, 그 중에서도 채만식 문학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아이러니이다.²¹⁾ 더불어 인물 희화화도 그의 풍자소설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요소이다. 이 때 사용하고 있는 희화화와 아이러니는 조선 후기 풍자소설의 특성과 일맥상통한다.²²⁾ 예컨대 박

21)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p.189.

22) 이선영은 채만식의 반어법 사용을 통한 풍자에 대해 전통적인 판소리 사설형식의 수용이라고 하면서 “그 자체가 일제의 검열을 피하는 효과가 있으며, 그것과 아울러 채만식이 식민지 하에서도 우리 문학예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였다는 면에서 뜻이

지원의 소설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²³⁾

먼저 인물 희화화를 살펴보면 『태평천하』와 『맹순사』, 『미스터 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발단에서부터 인물을 희화화하여 그가 소설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얼굴이 말(馬面)처럼 길에서 말대가리라는 별명을 들던 윤직원 영감의 선친 윤용규는 본이 시골 토반(土班)이더냐 하면 그렇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전(衙前)이더냐 하면, 실상은 아전질도 제법 해먹지 못했습니다. <……>

말대가리 윤용규 그는 삼십이 넘도록 탈망바람으로 샷샷 하나를 의관삼아 촌 노름방으로 으실으실 돌아다니면서 개평폰이나 뜯으면 그걸로 돌아앉아 투전장이나 뽑기, 방통이질이나 하기…²⁴⁾

맹순사가 동양의 대현이라는 맹자님과 어떤 혈통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 나라 명제상 맹정승 맹고불이 맹정승과는 제 몇 대손이나 되는지, 혹은 아무것도 안 되는지, 그런 것은 상고하여 보지 못하였다.²⁵⁾

있다”고 평가한다.(이선영, 『창조적 주체와 반어의 미학』,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1999, p.28.)

23) 권순궁은 박지원의 풍자의 전략을 4가지로 보았다. 첫째, 당대 사회의 중심적 결함을 지적하는 핵심 찌르기 방식, 둘째, 풍자의 의도를 감추는 방식, 셋째, 여러 비유를 사용하여 풍자효과를 극대화시키거나 다양한 어휘 즉 일상어, 비속어, 경구, 속담 등을 활용하여 세부묘사를 생동감있게 전개시키는 방식, 넷째,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여향인을 등장시켜 대리 풍자케 하는 방식이 그것이다.(권순궁, 『연암 박지원의 풍자전략과 한문단편』, 『고전소설의 풍자와 미학』, 박이정, 2005, p.59.) 이 박지원의 풍자의 방식은 채만식에게 대부분이 차용과 변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박지원의 『호질』에서 훌륭한 학자로 칭송받는 북곽 선생과 열부로 평가받는 과부 동리지는 결과 속이 판연히 다른 도덕적이지 못한 인물들이다. 특히 북곽 선생은 동리자의 자식들에게나 호랑이에게도 희화화된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 서술자는 서민들의 모범이어야 할 그들에 대해 냉소적이며 된다.

24) 채만식 『태평천하』, 『채만식전집』3, p.28.

25) 채만식, 『맹순사』, 『채만식전집』8, p.259.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인물의 모습과 그 집안의 내력이 희화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설은 등장인물을 묘사하여 그의 성격을 드러내는데 반해, 『태평천하』와 『맹순사』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하여 등장인물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소개한다. 이 경우 독자는 등장인물과 거리를 유지하며 그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인물 희화화는 그 인물과 주변에 대해 풍자가 본격적으로 감행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기능까지 담당한다. 흥미로운 것은 『탁류』의 장형보와 『낙조』의 황주 아주머니를 형상화할 때도 이 기법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에게 인물 희화화는 부정적인 인물을 표현하려할 때 드러나는 소설의 한 특성일 수도 있다. 따라서 풍자소설 발단에서 인물에 대한 외모적 특성을 통한 그로테스크한 희화화와 인물의 집안 내력을 희화화하는 것은 아이러니 기법과 맞물리면서 그 효과는 배가 된다.

채만식은 대부분의 풍자소설에서 아이러니²⁶⁾를 사용한다. 명확하게 아이러니를 개념화하기 어렵지만 1930년대 풍자소설에서는 ‘말의 아이러니’를 주로 사용한 반면 해방 후 풍자소설에서는 ‘상황의 아이러니’가 주를 이뤘다.

“아니, 그렇다면 아저씨 대학교 잘못 다녔소. 경제 못하는 경제학 공부를 오 년이나 했으니 그게 무어란 말이요? 아저씨가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경제 공부를 하구두 왜 돈을 못 모으냐 했더니, 인제 보니깐 공부를 잘못해서 그랬

26) 뮤크도 지적했듯이 “말의 아이러니는 상당히 만족스럽고 기억할 수 있을 만한 형태”로 정의할 수 있지만 상황의 아이러니는 “개념화가 오래도록 지연되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개념화가 어렵다.(D.C.Muecke, 문양득 역, 『아이러니』,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p.45.) 개념화하기가 어렵지만 이를 보다 간명하게 정의하자면 주체가 말하려는 것과 의도하는 것이 달라서 표면적 진술과 실제의 의도가 달리 나타나는 것은 언어적 아이러니이고, 사건이나 상황, 또는 플롯의 전개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나타난 현실이 정반대로 전도되어 드러나는 것이 상황(극적)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군요!”

<……>

“그러면 아저씨는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돈 모아 부자 되는 경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모아둔 부자 사람네 돈 빼어 쓰는 사회주의 공부를 했으니 말이지요….”²⁷⁾

위의 인용문은 『치숙』에서 사회주의 운동에 진력했던 아저씨와 조카의 대화 중 조카의 말이다. 그가 말하는 핵심은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문제제기다. 그에 따르면 아저씨가 공부한 경제학은 ‘돈’을 버는 학문지만, 아저씨가 사회에 나와 ‘사회주의’ 운동을 한 것은 부자의 돈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대학교를 졸업한 아저씨의 말에 대해 소학교밖에 다니지 못한 조카의 발언은 실소를 자아낸다. 따라서 아이러니를 통해 채만식은 당시 사회를 바라보는 지식인의 인식과 일반 서민의 인식의 차를 드러내면서 서민들의 무지를 폭로한다.

“에구머니”

놀라 질겁을 하였으나 이미 배알아진 양 치물은 귀퀴한 냄새와 더불어 백 절폭포로 내려쫓혀 웃으면서 쳐드는 S소위의 얼굴 정통에 가 찢르르,

“유 메빌!”

이 기급할 자식이라고 S 소위는 주먹질을 하면서 고향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지둥 버선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짹짹 비비는 미스터 방의 턱을

“상놈의 자식!”

하면서 철컹 어퍼컷트로 한 대 갈겼더라고.²⁸⁾

27) 채만식, 『치숙』, 『채만식전집』7, p.272.

28) 채만식, 『미스터방』, 『채만식전집』8, p.303.

위의 인용문은 『미스터 방』의 결말부분으로 방삼복이 자신의 부와 명예를 과시하기 위해 친일의 행적을 지닌 백주사를 그의 집에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양치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S소위에게 양치물을 쏟아낸 장면이다. S소위는 보잘 것 없는 신기료장수였던 방삼복을 미스터 방으로 만들어 준 인물인데, 그에게 양치물을 쏟아낸 행위는 S소위와의 결별을 상징하는 한편 S소위의 권력에 의지하여 지금까지 방삼복이 저질렀던 행악을 응징한다는 차원에서 독자에게 미적 쾌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아이러니에 바탕한 풍자를 하나의 정신으로 이해할 때, 악행한 자에게 벌을 내린다는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낙관적 세계관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3. 역사인식의 부재에 따른 기회주의

채만식의 풍자적 소설에서는 지식인의 성찰과 삶의 지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풍자적 소설의 지식인들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무능하지만 고등교육을 받아 자의식이 강하며, 항상 자신의 행위를 거울에 비춰보듯 성찰한다. 더불어 자신의 허위의식을 반성하고 삶의 방향을 탐색한다. 그들이 비춰보는 거울에는 『레디 메이드 인생』에서 보듯이 근대 지식인 탄생의 모순이 있으며, 『명일』에서 보듯이 경제적으로 무능한 지식인의 현 상황이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노동’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한다. 또한 『역로』, 『낙조』 그리고 『민족의 죄인』에서의 거울에는 과거 자신의 친일 행위가 비친다. 자신의 과거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성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민족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그러나 1930년대 풍자소설과 해방 후의 풍자소설에서는 역사인식이 결여된 인물들에 대한 풍자가 나타난다. 풍자소설의 등장인물은 서민 혹은 고리대금업과 소작료 등으로 중산층이 된 자이거나 타자의 힘을 통해 자신

의 출세를 이뤘거나 이루려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현재 처한 상황에만 만족하며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즉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의 욕망을 충실히 실현하는 것이다. 『치숙』의 표면적 서술자인 조카가 그렇고 『태평천하』의 윤 직원과 그의 가족이 그렇다. 그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존재에 대해서는 무한 신뢰를 보낸다. 당시 지배세력이었던 일제에 무한 신뢰를 보내는 것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다. 『치숙』의 조카는 아저씨의 말보다 내지인 상점주인을 신뢰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내지인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삶의 목표이다. 『태평천하』의 윤 직원 또한 중학이 사회주의 운동으로 검거된 상황에서 손자에 대한 염려보다는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하여 우리 조선놈을 보호하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어”²⁹⁾라고 말하며, 일제 치하를 ‘태평천하’로 인식하고 손자의 행동에 분노한다. 일제에 의한 예측된 현실은 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오로지 그들은 자신의 이익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대부분의 식민지인이다.

마찬가지로 해방 후의 풍자소설에서도 등장인물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익일 뿐이다. 풍자소설인 『맹순사』의 아내와 맹 순사가 그렇고 『미스터 방』의 방삼복과 백 주사가 그렇다. 또한 『논 이야기』의 한 생원이 그렇다. 더불어 풍자적 소설인 『도야지』(『잘난 사람들』, 1948)의 문영환 가족이 그렇고, 『낙조』(『잘난 사람들』, 1948)의 황주 이주머니가 그렇다.

백주사의 아들 백봉선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쫓겨나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

29) 채만식, 『태평천하』, 앞의 책, p.191.

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³⁰⁾

독립?

신통할 것이 없었다.

독립이 되거로서니, 가난뱅이 농투성이가 별안간 나으리 주사 될 리 만무 하였다. 가난뱅이 농투성이가 남의 세토(貰土:小作) 얻어 비지땀 흘려가면서 일 년 농사지어 절반도 넘는 도지(小作料) 물고 나머지로 굶으며 먹으며 연명이나 하여가기는 독립이 되거나 말거나 매양 일반일 터이었다.³¹⁾

위의 인용문은 해방 후 풍자소설 『미스터 방』과 『논 이야기』이다. 『미스터 방』에서 일제 치하 백 주사는 아들의 친일을 기반으로 마을 사람들을 괴롭혀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그러나 해방 후 마을 사람들에게 전 재산을 약탈당한다. 그런 백 주사에게 미스터 방은 마을 사람들에게 빼앗긴 재산을 찾아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과거 그와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던 인물과의 약속하는 것을 볼 때, 미스터 방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다. 또한 『논 이야기』에서는 등장인물 한 생원으로 대표되는 일부 서민들의 독립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일제 치하 전, 관리들의 횡포로 고통을 받았고 일제 치하에서 역시 고통을 받았던 그의 입장에서 볼 때, 해방이 되어 체제가 바뀌었다고 한들 서민들의 처지가 달라질 수 있겠느냐는 푸념은 일면 타당하다. 이는 고통스런 과거를 살아온 세대들에게 있어 당연한 역사적 인식일 수 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젊은 세대의 경우 민족의 독립을 기뻐하며 새 시대를 꿈꾸는데도 불구하고 한 생원은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역사에 대한 인식 부족은 오직 현재의 나만이 중시되었기

30) 채만식, 『미스터 방』, 앞의 책, p.300.

31) 채만식, 『논 이야기』, 앞의 책, p.305.

때문인데, 순간순간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 탁월한 대처 능력은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찰나의 쾌락일 뿐이며, 결국 과멸이라는 자명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다.

이처럼 채만식의 서민들에 대한 반복적인 풍자소설 창작은 풍자적 소설 창작 행위와 맞물려 있다. 풍자적 소설의 창작이 친일 행위에 대한 자의식의 소환에 따른 고통이라면, 역으로 풍자소설 창작은 자기 쾌감의 한 행위일 수 있다. 즉 풍자를 통해 과거 자신의 친일 행위를 상대적으로 축소시키거나 무화시키고자하는 무의식적 행위일 수도 있다.

Ⅲ. 채만식 풍자소설의 차이

1. 사건의 연속과 반전

1930년대와 해방 후 풍자소설의 차이는 소설 구조에 있다. 1930년대 풍자소설은 사건과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반면 해방 후 풍자소설은 사건과 사건의 반전이 거듭된다. 사건과 사건의 계기적 구조는 결말부분을 예측할 수 있으나 사건의 반전 구조는 그 예측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극적 효과를 통해 독자에게 미적 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시킨다. 또한 열린 결말로 끝을 맺어 독자에게 상상력을 배가시키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부여한다.

1930년대 풍자소설은 사건과 사건의 연속된 구조로 인해 그 결말을 예상할 수 있다. 즉 표면적으로 볼 때, 열린 결말로 보이지만 결말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닫힌 결말인 셈이다. 장편소설 『태평천하』에서 윤 직원과 그의 가족은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경제적으로 몰락한다. 손자 종학이 사

회주의 운동으로 잡혔다는 전보의 설정이 갑작스런 집안의 몰락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집안의 경제적 몰락은 가족이 벌이는 연속적인 사건들에서 예고되어 있다. 아들 윤 주사의 노름을 통해 늘어나는 빚과 “군에 다니는 것은 명색뿐이요, 매일 술타령에 계집질, 게다가 한 달이면 4, 5차례 씩 서울로 올라와서는 꾸드려 먹고 눕니다.”³²⁾에서 보듯이 손자 중수의 방탕한 생활만으로도 고리대금으로 벌어드리는 윤 직원의 수입을 초과한다. 그러므로 단지 종학의 검거가 집안 몰락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가족들의 경제적 파산이 집안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치숙』에서도 조카와 아저씨의 대화, 그리고 조카의 아저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소통 불가능한 대화를 하는데, 이것은 식민지에서 살아가는 지식인과 서민의 역사와 현실 인식의 차이를 언표화한 것이다. 즉 조카와 삼촌의 이질적인 목소리들이 교묘한 긴장관계를 맺음으로써 나타나는 풍자의 효과가 식민지 조선의 착종된 현실을 여실히 폭로한다.³³⁾ 이를 통해 볼 때, 작가 채만식은 표면적 서술자인 조카로 대표되는 당시의 서민들의 주요한 세계관이 빚어내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서로 간의 입장 차만 드러낸 채 소설을 끝낸다는 점에서 그는 계층 간의 소통의 불능상태를 폭로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해방 후의 풍자소설은 30년대 풍자소설과 비교할 때, 확연한 구조적 차이를 지닌다. ‘상황의 아이러니’를 사용하여 극적 반전을 꾀하는 것이다. 『맹순사』에서 해방 전 맹 순사는 아내에게 남부럽지 않은 물질적 풍요를 안겨주었고 자신도 직업을 이용하여 주변인들에게 뇌물을 받은 인물로 묘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청백관’으로 인식한다. 물론 이것은

32) 채만식, 『태평천하』, 앞의 책, p.149.

33) 정홍섭, 『채만식 문학의 풍자적 특질』, 『한국문학이론과 비평』1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p.54.

다른 동료들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적은 뇌물을 받았다는 것인데, 갑자기 찾아온 해방으로 인한 자기변명이 아닐 수 없다. 해방 이후에도 일제 치하의 순사들이 또 다시 순사노릇을 한다는 반전을 통해 해방의 상황이 부조리하게 흐른다는 것을 상징화한다.

“금세 상성을 했나? 얼음판에 자빠진 황소 눈깔처럼, 눈만 꼬머억허구 앉아서……남이 인살 하면 대답을 해야 하니해? 적어도 새조선의 경관으로.”

“평안 허슈?”

“아뿔튼 지질헌 오래 땡기는구려.”

강봉세 ……살인강도, 무기징역수 강봉세였다.

제작년 맹순사가 ×× 경찰서에서 유치장 간수를 볼 때에, 이 강봉세가 살인 강도질을 하고 붙잡혀 들어왔었다.³⁴⁾

위의 인용문은 맹 순사가 근무하는 파출소에 일제시대 때, 살인 강도질을 저지른 ‘강봉세’가 순사가 되어 나타난 장면이다. 살인강도를 저지른 인물까지도 순사가 된다는 설정은 연속적 반전의 상황이다. 이 소설의 결말에서 “허기야 예전 순사라는 게 살인강도 허구 다르게 있었나! 남의 재물 강제루 뺏어먹구, 생사람 죽이구 하긴 매일반였지.”³⁵⁾라는 맹순사의 독백에서 해방이라는 희망의 시·공간이 사실은 일제 치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이러니를 통해 환기하고 있는 것이다.

『미스터 방』에서도 사건 전개에 있어 반전이 일어난다. 신기료장수 방삼복은 해방을 맞이했지만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그 이유는 먹고사는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미군 소위에게 엉터리 통역으로 재물을 모으면서 비로소 해방의 기쁨을 누린다. 이 같은 그의 행위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세계

34) 채만식, 『맹순사』, 앞의 책, pp.266-267.

35) 채만식, 위의 책, p.268.

관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양치물을 미군 소위에게 벨음으로써 그의 부귀영화는 끝을 맺는다. 일순간의 실수가 기회주의적 몰락이라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치달은 것이다. 『논 이야기』도 사건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독자의 정서적 극대화를 꾀한다. 등장인물 한 생원이 일제시대 때 일본인에게 판 토지가 해방 후에 자신에게 되돌아오리라는 기대감이 절망으로 바뀌는 상황이 그 첫 반전이라면 국가가 토지를 유상 불하한다는 것은 자본을 가진 친일 인사에게로 또 다시 토지가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두 번째 반전인 것이다.

1930년대 채만식의 풍자소설은 사건과 사건의 연계 속에서 그 상황이 확대·심화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치숙』이 일제치하를 살아가는데 있어 개인과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였다면, 『태평천하』는 집안 전체의 문제로, 그리고 『소망』은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별 작품의 전개 양상도 갈등이 고조된다. 하지만 이 구조로 볼 때, 풍자의 기법으로 심화되는 상황을 제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미래 전망을 세우는 것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방 후 풍자소설은 반전의 구조를 통하여 독자에게 미적 쾌감을 주거나 상황의 심각성을 성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1930년대 풍자소설의 구조와는 판연한 차이를 지닌다. 동시에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상황이 점차 심화되는 과정에서 오는 체념적 상태를 일정부분 넘어서는 열린 결말구조를 취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열어 준다.

2. 경제와 정치의 욕망

욕망한다는 것은 결핍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욕망이 과도할 경우, 사회는 그 경쟁으로 휩쓸려 들어가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

거나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이 첨예화될 수 있다. 그 결과 야기된 폐해는 한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일제 치하에서 뿐만 아니라 해방 후의 현실에서도 나타났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일제 치하에서는 일제의 억압 하에 일어난 것이고 해방 후에는 미군정 하에서 일어난 것이다.

1930년대 채만식의 풍자적 소설과 풍자소설의 중심에는 경제적 욕망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된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부분 채만식의 풍자에 대한 선택이 일제의 사상탄압에 의한 문학의 우회적 방법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니 일원짜리를 주우면? 일 원 가지고는 셈이 닿지 않고 십 원? 이니 십원 짜리 열 장 …그렇지 열장 백 원 …… 그놈이면 우선 무엇보다도 고놈의 여우 같은 노파한테 석 달 밥값 육십 원을 팩 내던져 주고 그 굶실거리는 꼴을 좀 보고 청목당에 가서 - 아차 밤이 늦었지… 그러면 우선 설렁탕이나 두어 그릇 먹고 ……³⁶⁾

육원 십이원 이십사원 사십팔원 구십육원 백구십이원. 팔원 모자라는 이백 원……사백원 팔백원 일천육백원 삼천이백원 육천사백원 일만이천팔백원. 팔백원은 떼어버리고 이만사천원 사만팔천원 십구만이천원 삼십팔만사천원 칠십육만천원 일백오십삼만육천원……³⁷⁾

위의 인용문은 1930년에 쓴 『양탈』과 1934년에 쓴 풍자적 소설인 『레디 메이드 인생』의 장면들이다. 두 작품의 유사성은 인용문에서 보듯이 지식인 등장인물이 길에서 하는 돈에 대해 공상이다. 다만 『양탈』에서는 길가

36) 채만식, 『양탈』, 『채만식전집』6, p.502.

37) 채만식, 『레디 메이드 인생』, 『채만식전집』7, p.55.

에 떨어진 돈을 주운 이후의 행위이고, 『레디 메이드 인생』에서는 P라는 지식인의 포켓에 있는 약간의 잔돈과 지폐를 가지고 ‘줍쟁이’를 하는 행위이다. 두 소설의 본질적 차이는 『양탈』의 지식인은 지식인이라는 허위의식에 쌓여있지만 결국 궁핍을 견디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금광 노동자를 자청한다는데 있다. 허위의식을 지닌 인물의 갑작스런 변화는 이 소설의 긴장감을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리얼리티도 떨어뜨린다. 하지만 『레디 메이드 인생』의 지식인은 스스로를 풍자함으로써 흥미를 유발시킨다. 또한 지식인의 궁핍한 상황에 리얼리티를 부여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킨다. 이 같이 풍자는 대상을 희화화하여 조롱하거나 비판하지만 그 역으로 궁핍한 상태의 심각성을 독자에게 각인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풍자적 소설은 지식인의 궁핍한 생활을 타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절실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서민들의 삶은 어떠한가? 풍자소설인 『치숙』에서 서술자 ‘나’는 오로지 돈을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돈을 벌기 위해 일본인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일본인 여성을 아내로 얻어 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돈의 축적에 따라 그 행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식민지인에게 내면화된 것이다. 이와 다른 계층인 『태평천하』의 윤 직원에게도 돈은 중요한 삶의 목적이다. 그는 돈을 세고 관리하는 행위가 그 무엇보다 행복하다. 이러한 전 식민지인들의 과도한 돈에 대한 욕망은 지식인에게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것을 벌기 위해 자존심을 버려야 하며 그것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잃어버리고 단지 일제에게 자발적으로 예측되어 배부른 돼지처럼 살아가다. 『소망』은 그런 식민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지식인의 몸부림이다. 그는 의사인 처형을 고름을 짜서 돈을 버는 존재로 비하하고 더위와 싸워가며 겨울옷을 입고 종로에 나아가 소극적이지만 돈에 매몰된 행인을 비웃는다.

결론적으로 볼 때, 1930년대 풍자적 소설은 현실생활과 동떨어져 살아 가던 지식인의 경제적 무능력에 대한 비판이고 풍자소설은 과도하게 돈을 욕망하는 식민지인들에 대한 풍자이다. 즉 지식인들에 대해서는 체면만을 내세워 경제적 궁핍에 빠져드는 행위를 풍자한 것이고 식민지인들에 대해서는 당대의 모순된 현실의 근본적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행위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탁류』에서 계봉이 언급한 ‘분배’는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채만식이 제시한 식민지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도입된 자본주의의 위력은 어떠한 대안으로도 제어될 수 없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후 쓴 『패배자의 무덤』(『문장』, 1939년 4월)에서 등장인물 ‘종택’의 죽음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유의지사(有意之士)와 유산지민(有産之民)이 모름지기 숭상할 대도(大道)”³⁸⁾라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실망한 나머지 자신의 뜻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절망에 자살을 감행한다. 그만큼 자본주의의 힘은 식민지 상황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³⁹⁾

해방 후 채만식의 풍자소설은 돈에 대한 욕망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풍자적 소설과 궤를 같이 한다. 풍자적 소설에서 지식인은 자기 풍자를 감행하는데, 다름아닌 과거 자신의 친일 행위에 대한 반성이었다. 이는 해방 후 정치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정치상황에 대한 관심이 드러난 소설이 『역로』이다. 등장인물 ‘나’는 지식인으로서 일제 치하에서 일제를 위한 강연을 ‘세 번’했으나 “죄

38) 채만식, 『패배자의 무덤』, 『채만식전집』7, p.385.

39) 이후에 쓴 장편소설 『금의 정열』(『매일신보』, 1939.6.19.-11.19)은 흥미로운 위치를 점유한다. 앞서 돈을 좇는 서민들에게 비판을 가했던 작가가 금광을 소재로 장편소설을 창작했기 때문이다.

가 경하대서가 아니라 존재가 하두 미미하니깐 죄값에도 쳐주지”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역적놈의 한뫼’에 대해 해방 후의 후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 그들이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것으로 인식한다. 결국 미군에게 미래를 맡길지 모른다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더불어 정치에 대한 관심은 기차 안에서 만난 서민들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렇게 볼 때, 정치에 대한 관심은 좋은 나라 만들기에 대한 욕망의 한 기표인 것이다.

분출된 정치적 욕망을 바르게 이끌어 갈 방법을 찾아야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해방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미군정은 사회질서를 회복하고자 일제에 봉사했던 인물들을 대거 등용한다. 이러한 모순된 현실을 「맹순사」에서는 과거 살인자로 구금되었던 한 인물까지도 순사가 되는 것으로 상징화하면서 질서를 바로 잡아야할 임무를 맡는 순사들이 더욱 사회 혼란을 조장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미스터 방」에서 본 바와 같이 일제시대 일본인에게 아부하듯이 해방 후에는 미군에게 아첨하여 이익을 취하는 자들도 나타난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식민지 체제의 재현일 수 있다. 더불어 「논 이야기」에서는 해방 후 농촌의 모순적 상황을 드러낸다. 즉 농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나라의 정치력 부재를 풍자한다.

이 같이 1930년대 풍자소설이 사회문제를 경제에서 찾고 있다면 해방 후 풍자소설은 사회문제를 정치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1930년대 풍자소설은 과도한 경제적 욕망이 사회 공동체를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일제에 영구히 벗어날 수 없는 예속화의 길로 빠져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경계의 의도가 있었다. 해방 후 풍자소설은 군정 하에 놓여있지만 해방된 나라에서 시급히 해결될 문제는 정치적 질서와 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인데, 그 대안의 단초를 부조리한 현실을 풍자함으로써 드러낸 것이다.

3. 전망의 부재와 내재

1930년대 풍자소설과 해방 후 풍자소설의 중요한 차이 가운데 하나는 미래 전망의 유무이다. 이것은 풍자소설 창작 전후의 채만식의 소설과 연계해서 볼 때, 그 모습이 드러난다. 풍자소설 창작에 앞서 발표되었던 1930년대 풍자적 소설인 「레디 메이드 인생」이나 「명일」이 해방 후의 풍자적 소설인 「역로」, 「낙조」, 「민족의 죄인」에 비해 지식인 등장인물의 자기비판과 자아성찰이 보다 철저했는지의 여부와 일정 부분 관련을 지닌다.⁴⁰⁾

「레디 메이드 인생」과 「명일」에서 등장인물은 이상과 실생활 사이의 모순을 인지하지만 그 모순에 대한 자신의 성찰은 유보한 채 그것을 사회의 잘못으로 전가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자기 풍자 후의 행동에서도 스스로가 노동현장에 뛰어들기 보다 간접적으로 - 「레디 메이드 인생」에서는 아들을 인쇄소로 취업시키고 「명일」에서는 아들을 자동차 정비공장에 취직시킴으로써 스스로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한다. - 드러날 뿐이다. 더불어 작가는 지식인 등장인물에 대해 연민까지도 보인다. 이 현상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소설이 「치숙」이다. 조카를 통해 이뤄지는 아저씨의 경제적 무능력에 대한 비판은 역으로 조카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물론 주요 풍자의 대상은 일제치하에서 내지인의 고용살이에 만족하며 내지인 여성과의 결혼을 꿈꾸는 조카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병을 얻어 이혼까지 고려했던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40) 이선영은 「레디 메이드 인생」이 일정부분 리얼리즘을 성취했지만 그 성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그 이유는 “이 작품이 식민지 사회의 근본 모순을 드러내는 데 소극적이고, 상식이나 교양내지 인문학의 지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상보다는 부정적인 인상이 더 강하며, 그리고 자유주의 내지 그 사조를, 그것이 상식이나 교양 및 그런 지식의 보급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들에 기인하는 것이다.”(이선영, 앞의 책, p.28.)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저씨가 하는 말은 경제적 자립을 이룬 조카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다.

『태평천하』에서도 문제적인 인물 윤 직원과 그의 가족에 초점을 맞춰 전개되지만 그 가족에게서나 그 어디에도 전망은 부재한다. 윤 직원과 그의 가족의 생활은 단지 부와 방탕한 일상과 연결되어 있으며, 심지어 그 집안의 경제적 몰락을 그 구성원 누구도 인지하지 못한다. 문제는 윤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풍자만 있을 뿐 작가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즉 이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작가의 대안이 어디에도 없다. 손자 종학으로 상징되는 ‘사회주의’ 운동만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만 만일 그가 부조리한 식민지 현실의 대안이라면 검거되지 말았어야 한다. 설혹 검거되었다고 해도 그가 어떤 사회주의 운동으로 인해 검거되었는지 구체적 언급이 있어야 한다. 『소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타자의 성찰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시작한 남편의 행위는 아내는 물론이고 타자에게조차 비정상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1930년대 풍자소설은 “그 단면 단면의 예리한 관찰과 고발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 비판의 진실성이라는 문제를”⁴¹⁾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30년대의 풍자소설의 비판적 시선은 전망의 부재로 인해 이후의 소설들에서 드러나는 허무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패배자의 무덤』(『문장』, 1939.4)이나 『냉동어』(『인문평론』, 1940)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지식인이 현실과의 대결에서 그 전망을 드러내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거나 ‘냉동어’와 같이 어느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하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사였던 1940년 초반의 친일 작품 활동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⁴²⁾

41) 방민호, 『채만식과 조선적 근대 문학의 구상』, 소명출판, 2001, p.119.

42) 방민호는 채만식의 대일협력의 원인을 “일제 권력의 억압적인 힘”과 “생활의 피로”

그러나 해방 후의 풍자소설은 낙관적 전망이 내재되어 있다. 풍자적 소설인 『역로』와 『낙조』, 그리고 『민족의 죄인』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과거 지식인의 친일적 행위에 대한 거듭된 비판과 성찰은 『민족의 죄인』에서 나타난 누구나 ‘죄인의 민족’일 수 있다는 자기합리화의 논리⁴³⁾로도 읽히지만 작품을 통해 반복적으로 과거 자신의 친일행위를 비판하고 성찰한다는 측면에서 준열한 의지도 담겨있는 것이다. 류보선도 지적했듯이 “반성을 통한 새로운 방향의 설정”⁴⁴⁾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풍자소설에서도 미약하나마 미래의 전망을 내재하고 있다.

『맹순사』에서는 친일적 잔재와 부조리한 상황의 척결을 그리고 있다. 맹순사 스스로가 친일 순사 때 뇌물을 덜받아 ‘청렴’하다고 위안을 삼고 있으나 “제발 그런 거리가 하나결렸으면 ... 하다 못해 집 한 채 살 거리라도 걸렸으면...”⁴⁵⁾라고 한 말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사람됨이 드러난다. 그런데 해방 후에도 일제 때의 순사가 미군정의 지휘를 받아 진급도 하니, “예전 순사라는 게 살인강도허구 다를게” 전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살인강도질을 하던 위인까지 순사를 하는 해방 후의 현실은 무법천지나 다름없다. 따라서 사회 질서를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이들이 척결되어야 한다

로 본다.(방민호, 위의 책, p.40). 반면에 정홍섭은 채만식의 친일문학 행위는 자발성을 띤 것으로 그 내적 동기의 핵심을 “자민족(의 전통)에 대한 남달리 강렬한 애증심리”로 파악한다.(정홍섭, 『친일 논리에 되비춰 본 채만식 문학의 문제성』, 『한국언어문학』 53, 한국언어문학회, 2004, p.553)

43) 김윤식, 앞의 책, p.34.

44) “우리가 만약 채만식에게서 단지 솔직한 고해성사만이 아니라 반성을 통한 새로운 방향의 설정 혹은 새로운 방향에 의한 반성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위의 『민족의 죄인』이나 『역로』만큼 친일문제에 얽힌 복잡 미묘한 연관들을 충분히 제시한 작품도 드물다.”(류보선, 『반성의 윤리성과 탈식민성 -해방직후 채만식 문학의 한 특징』, 『민족문학사연구』45, 민족문학사학회 · 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p.71.)

45) 채만식, 『맹순사』, 앞의 책, p.263.

는 것을 아이러니를 통해 극적으로 그린다. 『미스터 방』에서의 방삼복은 백 주사로 대표되는 친일인사들과의 우호관계 뿐만 아니라 미군정과의 관계까지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영달에만 전력을 다한다. 이런 인사들이 중국에 가서 패배한다는 설정은 미적 쾌감뿐만 아니라 해방정국에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인식시킨다.

같은 시기에 쓴 풍자적 소설인 『도야지』의 문태석, 『낙조』의 박영춘 그리고 작가의 최후의 유작이라 할 수 있는 중편소설 『소년은 자란다』(『월간 문학』, 1972년 9월호)의 등장인물 영호를 통해서 낙관적인 민족의 미래가 구체화된다. 문태석과 박영춘의 가족들은 그들이 누렸던 부와 권력을 욕망하지만 이 젊은 세대는 그 같은 가족의 가치관에 대해 비판적이며, 이 사회가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한다.⁴⁶⁾

“그리고 말씀예요, 형님. 전 비단 북조선 정권에 대해서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남조선,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비울빈처럼, 실권은 여전히 미국 재벌이 쥐고 앉았는데 그런 독립은 없었어요. 일제시대의 만주국 독립 같은 그런 독립은 없었어요……만일 어떤 놈이구 간에 그 따위 정불 만들어 가지고 내용으론 외국에다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으면서 수염을 쓰다듬고 앉아서 독립을 했음네 하구 국민을 호령하는 놈이 있다면, 전 그런 놈 먼저 때려 죽이구서 북조선을 치러 갈테어요, 단연코 용설 안 해요.”⁴⁷⁾

46) 김재용은 해방 후 채만식 소설에 대해 역사를 이끌어갈 주체는 부재하지만 결코 저항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방직후 채만식 문학의 가능성과 한계”로 평가한다. (김재용, 『세계질서의 위력과 주체 부재의 저항 - 해방직후 채만식 소설을 중심으로』,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1999, p.176.) 하지만 채만식의 해방 후 소설을 볼 때, 신세대에 대한 믿음이 나타난 것에서 그들이 확고한 전망을 만들어갈 세대임을 채만식은 문학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47) 채만식, 『낙조』, 『채만식전집』8, pp.401-402.

위의 인용문은 『낙조』에서 지식인 서술자인 ‘나’와 국방경비대에 들어간 박영춘과의 대화 중 박영춘의 말이다. 그는 해방된 조국에서 최우선적인 민족적 과제로 남북의 통일과 외세가 배제된 자주적 독립임을 역설한다. 그의 말에는 분명 자기 희생과 급진성을 띠었지만 서술자 ‘나’로 대표되는 기존세대는 “‘무서운’ 후진을 보면서 범속(凡俗)하고 용렬한 나 자신”⁴⁸⁾을 발견하고 부끄럼을 느낀다. 해방된 조국의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 기존세대로서 고민만 할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신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다르게 신세대인 박영춘이 해방 후 독립국가를 위한 민족적 담론을 제시하였다면, 『소년은 자란다』에서는 도움을 주었던 동포들과 함께 서로 도우며, 세상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어린 남매를 통해 공동체의 담론과 신세대의 낙관적 태도가 표현된다. 해방 후 만주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모를 잃은 영호와 그 누이에게 사람들은 힘든 가운데서도 소중히 간직한 “꼬기작 꼬기작한 백원 한 장”⁴⁹⁾까지 꺼내어 주는 등 동포에게 애정을 느끼게 되고 아울러 그들은 부모로 대표되는 과거와의 단절⁵⁰⁾을 통해 세상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다짐한다.

48) 채만식, 위의 책, p.402.

49) 채만식, 『소년은 자란다』, 『채만식전집』6, p.365.

50) “과거와 절연하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은 열릴 수 없다는 것, 그것은 과거와 연계되는 현재의 절망에서 비롯된다. 『소년은 자란다』에서의 과거는 청산해버릴 미망스런 기억으로 개혁될 그 어떤 미덕이나 가능성도 끼쳐있지 않다.”(송기섭, 『단절과 신생(新生)을 위한 비판들 -채만식의 해방기 소설들』,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14,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학회, 2002, p.56.)

IV. 반복 그리고 차이

소설집 『잘난 사람들』(1948)의 후기에서 “역사는 같은 것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면, 역사가 정녕 아직도 『치숙』의 시간에 벗어나지 못하였음이라”⁵¹⁾라며 채만식은 해방 후의 상황을 일제 치하의 상황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해방 후의 현실이 일제 치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반복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풍자문학이 ‘문학의 정도(正道)’가 아니지만 버릴 수 없음을 말한다. 이에 대해 김윤식은 방법론상 풍자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허무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⁵²⁾ 채만식의 해방 후 상황 판단과 풍자문학을 선택한 것은 반복적인 창작 행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일제시대의 상황과 해방 후의 상황이 일대일 대응될 수 없다는 것이다. 들뢰즈의 말대로 “반복을 응시하는 정신 안에는 무엇인가 변하고 있다.” 즉 반복하는 대상 안에는 변화가 없지만 응시(contemplate)하는 정신 안에서는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정신 안에서 어떤 차이, 즉 어떤 새로운 것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채만식에게 적용한다면 의식적으로는 과거와 현재가 유사한 상황으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무의식적인 응시를 고려한다면 그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채만식의 풍자소설을 평가하면서 허무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채만식의 무의식적 응시를 세밀하게 판단하지 못한 탓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풍자적 소설과 풍자소설이 재현되는 현상은 채만식의 강박-친일에 대한 죄의식과 그것을 씻으려는 행위-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그 재현 안에

51) 채만식, 『『잘난 사람들』後記』, 『채만식전집』8, p.609.

52) 김윤식, 앞의 책, p.41.

서의 차이는 그의 세계관이 낙관적 전망으로 변화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그 현상으로 일제 치하에 쓴 풍자적 소설에서 자기비판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풍자소설에서 타자에 대한 비판만이 성행할 뿐 그 대안이나 전망을 세우지 못했다. 그 결과 이후의 소설들에는 허무주의적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해방 후 풍자적 소설에서 자기비판이 적극적이고 치열하였기 때문에 풍자소설에는 당대 현실을 풍자하였지만 역설적으로 낙관적 전망이 내재된다. 그 결과 이후의 소설들에서는 현실 문제에 대한 대안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채만식, 『채만식전집』3·6·7·8권, 창작과 비평사, 1989

2. 논문 및 단행본

- 권순궁, 「연암 박지원의 풍자전략과 한문단편」, 『고전소설의 풍자와 미학』, 박이정, 2005, p.59.
- 김남천, 「산문문학의 일년간」, 정호웅·손정수 엮음, 『김남천 전집』1, 박이정, 2000, pp.538-539.
- 김윤식, 『채만식』, 문학과 지성사, 198, pp.26-45.
- _____. 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p.189.
- 김재용, 「세계질서의 위력과 주체 부재의 저항-해방직후 채만식 소설을 중심으로」,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 소망출판, 1999, p.176.
- 류보선, 「반성의 윤리성과 탈식민지성-해방직후 채만식 문학의 한 특징」, 『민족문학사연구』45,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p.71.
- 방민호, 『채만식과 조선적 근대문학의 구상』, 소명출판, 2001, p.40.
- 송기섭, 「단절과 신생(新生)을 위한 비판들 - 채만식의 해방기 소설들」, 『한국문학이론과 비평』1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2, p.56.
- 신두원, 「풍자와 니힐리즘적 부정 정신의 안과 밖」, 이주형 편, 『채만식 연구』, 태학사, 2010, p.159.
- 유진오, 「문단에 대한 희망」2·3, 『조선일보』, 1933.1.3
- 이도연, 『채만식 문학의 인식론적 지형도와 구성원리』, 소명출판, 2011, p.104.
- 이선영, 「창조적 주체와 반어의 미학」,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 소망출판, 1999, p.28.
- 이화진, 「채만식 풍자소설의 성격 재론」, 『국제어문』30, 국제어문학회, 2004, p.253.
- 정은경, 「최재서의 문학문화론과 그 이후」, 『우리문학연구』37, 우리문학회, 2012, p.530.
- 정호웅, 「현실 탐구의 깊이와 허무주의」, 『우리 소설이 걸어온 길』, 솔, 1994, p.117.
- 정홍섭, 「친일 논리에 되뇌된 채만식 문학의 문제성」, 『한국언어문학』53, 한국언어문학회, 2004, p.553.
- _____, 「채만식 문학의 풍자적 특질」, 『한국문학이론과 비평』14, 한국문학이론과 비

평학회, 2010, p.54

Deleuze, Gilles, 김삼환 역,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p.182.

Freud, Sigmund, 박찬부 옮김, 『쾌락원칙을 넘어서』, 열린책들, 1997, pp.16-23.

Lukace, Gyorgy, 김혜원 역, 『풍자의 문제』, 『루카치 문학론』, 세계, 1990, p.62.

Marx, Karl, 김호균 옮김,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중원문화, 1988, p.7.

Muecke, D.C, 문양득 역, 『아이러니』,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p.45.

Abstract

Repetition and Difference of Chae Man-sik's satirical novel

Lee, Sang-Jae

Chae Man-Sik was a typical fictionalized writer of satire about contemporary problem in 1930s. Kim Yoon-Sik was evaluated Chae Man-Sik's the satirical novel that his novel contains the spirit of satire rather than satir techniques but there were no alternative, eventually Chae Man-Sik's satirical novel is nihilistic tendency. After the evaluation of Kim Yoon-Sik, many scholars were influenced by him. However, this assessment was to reflect standpoint of the results and It's not considered his satirical novel of the liberation.

In this paper, from the perspective of repeat and the differences, discuss about the Chaemansik's satire novel of 1930s and after the liberation novel.

Chae Man-Sik's satirical novel are aspect of the repetition of three. First is satire of the self and the world. Second, his novels was based on the irony and satire the world through characteristics of the classic novel. Third, his novels was satirized opportunism due to lack of historical understanding. In contrast, differences of Chaemansik 1930 satirical novel and after the liberation novel are as follows. The first is continuous and reversal of event. The second is the desire of the economy and politics. And the third is lack of prospects and immanence of prospects

Key Word : Chae Man-sik, Satire, nihilism, repetition, difference, irony, opportunism, prospects.

이상재

소속 :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주소 : (138-180)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60-3 현대하이츠빌라 나동 202

전화번호 : 010-5294-8128

전자우편 : galry2000@hotmail.com

이 논문은 2015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5년 3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4월 10일 게재 확정됨.

